

# 東醫寶鑑 中 補中益氣湯의 臨床應用 研究 - 문헌고찰 및 활용성을 중심으로 -

유승열, 임영환, 국윤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 ABSTRACT

### Literature Study on *Bojoongikgitang* and Clinical Application

Seung-Yeol You, Young-Hwan Lim, Yoon-Bum Kook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To beef up natural immunity, we have used *Bojoongikgitang* which has been known to treat enervation in the oriental medicine.

This study is analyzed out structure material and the chief virtue of a prescription through Literature Study on *Bojoongikgitang* and Clinical Application.

And this study is investigated to make sure of the necessity and additional symptoms in using *Bojoongikgita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It is regarded that the structure materials of *Bojoongikgitang* consist of Astragali Radix one *jeon*(錢) five *poon*(分), Ginseng Radix, Atractylodis Macrocephalae Rhizoma, Glycyrrhizae Radix one *jeon* for each, Citri Pericarpium, Angelicae Gigantis Radix five *poon* for each, Cimicifugae

- 
- 교신저자 : 국윤범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 Tel : 033-730-0661 E-mail : kook@sangji.ac.kr
  - 접수 : 2009/ 05/ 20 채택 : 2009/ 06/ 09

Rhizoma, Bupleuri Radix three *poon* for each.

2. The necessity symptoms in using *Bojoongikgitang* are a pale complexion, drowsy eyes(目無精光), vigorless, lethargy, sluggish talk.

3. The fittest prescriptions prior to the necessity symptoms in using *Bojoongikgitang* are *Bojoongikgitang* added Paeoniae Radix Alba, Scutellariae Radix in fever, exterior heat, mild fever, *Bojoongikgitang* added Ephedrae Radix, Triticum Fructus Levis, Aconiti Lateralis Preparata Radix in spontaneous sweating, spontaneous sweating by yang deficiency, *Bojoongikgitang* added Paeoniae Radix Alba, Scutellariae Radix in feeling the pulse like a flood, largeness and weakness, scatter and largeness, flood and largeness for diagnosis respectively. *Bojoongikgitang* Entering the heart channel by culturing the blood prescription in vexation, vexation and anxiety, *Soongihwajoongtang* in headache, *DossiBojoongikgitang* in rigor, *Bojoongikgitang* annexed *Saengmaecsan* in thirst, *Daninsamtang* or *Jojoongikgitang* in asthma, asthma by congestion of the upwardness, *Eegongsan* in light eating, eschewing food, losing one's appetite, *Ikweeseungyangtang* in deficiency failing to control blood and blood collapse.

4. To treat a functional disease is superior to organic one in using *Bojoongikgitang*.

Key word : *Bojoongikgitang*, *Dongueybogam*, prescription

## I. 緒 論

지금의 한국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시기라고 말한다. 서울대학교 유태우 교수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집 냉장고나 슈퍼마켓, 식당 어디에서도 음식은 넘쳐나고, 몸은 이미 잘 먹어서 영양과잉 상태에 이르렀다. 목욕탕에 온 중년 남자의 상당수가 배가 나와 있는 것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비만, 당뇨병, 심장병 등이 그 증거이다.”<sup>1)</sup> 따라서 요즘 시대는 영양부족에 해당하는 補血, 補陰之劑를 사용할 경우가 예전보다는 적어졌다. 또한 양의학에서도 補血, 補陰의 개념에 해당하는 수혈이나 영양제, 닝겔 등은 많은 반면 補氣劑에 해당하는 양

약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臨床에서 사용하는 補益之劑의 경우도 六味地黃元이나 四物湯 같은 補血 補陰劑를 사용할 기회보다는 補中益氣湯 같은 補氣劑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음을 보게 된다.

양의학으로 좋은 효과를 보기 어려운 많은 질환에서 補中益氣湯을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보게 됨을 臨床에서 경험하게 되어 연구하게 되었다.

補中益氣湯은 금원시대인 A.D. 1232년 李東垣의 『東垣十種醫書』<sup>2)</sup>에서 처음 기록된 處方으로, 黃芪·人蔘·白朮·甘草·當歸身·陳皮·升麻·柴胡로 구성되어 있다. 中焦를 補하고 氣運을 補強해주는 대표적인 處方으로 勞役이 太甚하고 혹은 飮

食의 調節을 잃어서 몸이 煩熱하고 自汗하고 倦怠한 症을 다스리며<sup>3)</sup> 그 후 『醫學入門』, 『景岳全書』, 『醫宗金鑑』, 『東醫寶鑑』, 『方藥合編』 등 주요한 의서에서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최근의 中國 『中醫十大名方妙用』<sup>4)</sup>에는 免疫增強作用, 內分泌調節作用, 抗腫瘍作用, 抗潰瘍作用, 心血管補強作用, 蛋白質合性促進作用 등의 藥理作用이 있어 內科疾患으로는 低血壓, 慢性結腸炎, 慢性肝炎, 慢性細菌性病疾, 胃下垂, 尿滯留, 遺尿, 慢性腎盂腎炎, 腎下垂, 眩暈 등에, 婦人科疾患으로는 前置胎盤, 子宮脫垂, 崩漏 등에, 小兒科疾患으로는 尿頻, 內傷發熱, 小兒反復呼吸道感染 등에 사용하며, 精子缺乏症, 精子活力低下, 陽痿 등의 男性疾患에도 활용하고 있다.

최근까지 補中益氣湯에 대한 研究로는 補中益氣湯 및 그 가미방을 투여한 중풍患者에 대한 임상적 고찰<sup>5)</sup>, 補中益氣湯 다당체 분획의 대식세포 분화 유도 및 기능 증진 효과<sup>6)</sup>, 補中益氣湯이 알레르기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sup>7)</sup>, 補中益氣湯 및 補中益氣湯 가미방이 흰 쥐의 알레르기 천식에 미치는 영향<sup>8)</sup>, 補中益氣湯의 T세포 증식 유도 효과<sup>9)</sup>, 補中益氣湯의 B세포 분화 유도 효과<sup>10)</sup>, 補中益氣湯이 생쥐의 특이적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sup>11)</sup> 등의 論文이 있지만, 補中益氣湯의

文獻의 考察이나 이에 대한 임상적응에 대한 論文은 없었다. 본 論文에서는 補氣劑의 대표적인 補中益氣湯을 文獻的 考察해 보고, 補中益氣湯을 복용한 56명의 臨床例를 통하여 정확한 적응증을 연구하여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II. 本 論

### 1. 補中益氣湯의 文獻考察

본 논문에서 검색한 문헌은 총 19권으로 東醫寶鑑, 景岳全書, 丹溪心法附餘, 醫部全錄, 醫學入門, 方藥合編, 醫宗金鑑, 醫方集解, 萬病回春, 丁茶山小兒科秘方, 醫學心悟, 醫學正傳, 血證論, 葉天士女科, 古今實驗方, 腹診과 正統方劑學, 筆花醫經, 濟陰綱目, 古今各方이며, 각 문헌에 기재된 補中益氣湯의 處方內容, 각 藥材의 分量을 조사하였으며, 공통적으로 나오는 主治症을 종류별로 분류하였다.

#### 1) 補中益氣湯의 處方內容

補中益氣湯이 각 문헌에서 사용된 약재를 조사하였다.

#### 2) 補中益氣湯의 藥材 分量頻度

상기의 處方들에 사용된 각 藥材를 分量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各 醫書에 기재된 補中益氣湯 약재구성

冊名	藥材構成	특징
東醫寶鑑 <sup>3)</sup>	黃芪 一錢半, 人蔘 白朮 甘草 各一錢, 當歸身 陳皮 各五分, 升麻 柴胡 各三分	
景岳全書 <sup>12)</sup>	人蔘 黃芪(炒) 白朮(炒) 炙甘草 各一錢半, 當歸 一錢, 陳皮 五分, 升麻 柴胡 各三分, 生薑, 大棗	
丹溪心法附餘 <sup>13)</sup>	黃芪 一錢半, 人蔘 炙甘草 各一錢, 白朮 當歸身 柴胡 升麻 陳皮 五分	
醫部全錄 <sup>14)</sup>	黃芪(蜜灸) 一錢半, 人蔘 炙甘草 各一錢, 陳皮 白朮(土炒) 當歸 各五分, 升麻 柴胡 各三分, 薑三片, 棗二枚	
醫學入門 <sup>15)</sup>	黃芪 人蔘 甘草 各一錢, 當歸 白朮 陳皮 柴胡 升麻 各五分	
方藥合編 <sup>16)</sup>	黃芪 一錢半, 人蔘 白朮 甘草 各一錢, 當歸身 陳皮 各五分, 升麻(酒洗) 柴胡(酒洗) 各三分	
醫宗金鑑 <sup>17)</sup>	黃芪 人蔘 雲朮 炙甘草 陳皮 當歸 升麻 柴胡 生薑 三片 大棗二枚	雲朮은 운주의 출을 뜻한다.

醫方集解 <sup>18)</sup>	黃芪(蜜灸) 一錢半, 人蔘 炙甘草 一錢, 白朮(土炒) 陳皮 當歸 五分, 升麻 柴胡 二分, 生薑 三片, 大棗 二枚
萬病回春 <sup>19)</sup>	嫩黃芪(蜜灸) 一錢半, 人蔘(去蘆) 一錢, 白朮(去蘆油) 陳皮甘草 當歸(酒洗) 各一錢, 柴胡 升麻 各五分, 生薑 三片 大棗 一枚.
丁茶山小兒科秘方 <sup>20)</sup>	人蔘 一錢半, 黃芪 白朮 橘皮 各一錢, 當歸 甘草 各五分, 升麻 柴胡(并酒洗) 各三分, 生薑 二片
醫學心悟 <sup>21)</sup>	黃芪 一錢半, 白朮(陳土炒) 人蔘 當歸 炙甘草 各一錢, 柴胡 升麻 各三分, 陳皮 五分, 生薑 一片, 大棗 二枚
醫學正傳 <sup>22)</sup>	黃芪 一錢, 炙甘草 五分或七分, 人蔘 白朮 當歸 各七分, 陳皮 五分, 升麻 柴胡 各三分
血證論 <sup>23)</sup>	黃芪 三錢, 人蔘 三錢, 炙甘草 一錢, 白朮 三錢, 當歸 三錢, 陳皮 一錢, 升麻 一錢, 柴胡 二錢, 生薑 三錢 大棗 三枚
葉天士女科 <sup>24)</sup>	人蔘 黃芪(蜜灸) 白朮(蜜灸) 炙甘草 各一錢半, 當歸 一錢, 陳皮 五分, 升麻 柴胡 各三分, 生薑三片, 大棗二枚
古今實驗方 <sup>25)</sup>	黃芪(蜜灸) 一錢半 人蔘 白朮 當歸 炙甘草 陳皮 各一錢, 升麻 柴胡 各二分
腹診斗 正統方劑學 <sup>26)</sup>	黃芪 二錢, 人蔘 白朮 陳皮 當歸 一錢, 升麻 柴胡 五分, 生薑 大棗 甘草 一錢
筆花醫經 <sup>27)</sup>	黃芪 一錢半, 白朮(土炒) 人蔘 當歸 炙甘草 各一錢, 升麻 柴胡 各三分, 陳皮 五分, 生薑 一片, 大棗 二枚
濟陰綱目 <sup>28)</sup>	黃芪 人蔘 白朮 各一錢, 炙甘草 五分, 當歸 陳皮 各七分, 升麻 柴胡 各三分
古今各方 <sup>29)</sup>	黃芪 一錢半, 人蔘 白朮 各一錢二分, 當歸 九分, 陳皮 炙甘草 六分, 升麻 柴胡 各三分

Table 2. 補中益氣湯의 使用藥材에 따른 分量 및 頻度

藥材	用量	回數	頻度(%)
黃芪	一錢 五分	12	67%
	一錢	4	22%
	二錢	1	6%
	三錢	1	6%
	소계	18	100%
人蔘	一錢	12	67%
	一錢 五分	3	17%
	一錢 二分	1	6%
	七分	1	6%
	三錢	1	6%
	소계	18	100%
白朮	一錢	9	50%
	五分	4	22%
	一錢 五分	2	11%
	三錢	1	6%
	一錢 二分	1	6%

	七分	1	6%
	소계	18	100%
甘草	一錢	12	67%
	五分	3	17%
	一錢 五分	2	11%
	六分	1	6%
	소계	18	100%
陳皮	五分	11	61%
	一錢	5	28%
	七分	1	6%
	六分	1	6%
	소계	18	100%
當歸	五分	7	39%
	一錢	7	39%
	七分	2	11%
	三錢	1	6%
	六分	1	6%
	소계	18	100%
升麻	三分	11	61%
	五分	4	22%
	二分	2	11%
	一錢	1	6%
	소계	18	100%
柴胡	三分	11	61%
	五分	4	22%
	二分	2	11%
	二錢	1	6%
	소계	18	100%
生薑	0片	8	44%
	三片	7	39%
	二片	2	11%
	一片	1	6%
	소계	18	100%
大棗	0枚	9	50%
	二枚	7	39%
	一枚	1	6%
	三枚	1	6%
	소계	18	100%

3) 補中益氣湯의 主治症  
 각 醫書에 나오는 補中益氣湯의 主治症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4) 補中益氣湯의 主治症 區分과 그에 따른 處方  
 상기한 醫書들에 나오는 主治症을 증상별로 구분하여 그 빈도수가 4회 이상인 것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主治症 중에서 補中益氣湯의 必然之症을 『東醫寶鑑』과 『芝山形象醫案』에 의거하여 處方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각 主治症들을 과 연결시켜 보았다.

Table 3. 補中益氣湯의 主治症

冊名	主治症
東醫寶鑑	治勞役太甚 或飲食失節 身熱而煩 自汗倦怠 面白 言微 嗜臥 無氣 目無精光
景岳全書	治勞倦傷脾, 中氣不足, 清陽不升, 外感不解, 體倦食少, 寒熱瘧痢, 氣虛不能攝血 等證
丹溪心法附餘	治形神勞役 或飲食失節 勞倦虛損 身熱而煩 脈洪大而虛 頭痛 或惡寒而渴 自汗無力 氣高而喘
醫部全錄	煩勞內傷, 身熱心煩, 頭痛惡寒, 懶語惡食, 脈洪大而虛, 或喘或渴, 或陽虛自汗, 或氣虛不能攝血, 或瘧痢脾虛, 久不能癒, 一切清陽下陷中氣不足證
醫學入門	治形神勞役 飲食失節 虛損 身熱而煩 脈大而虛 頸痛 或惡寒而渴 自汗無力 氣高而喘 兼治 婦人失女 經候不調 血脫 益氣之大法也
方藥合編	治勞役太甚 或飲食失節 身熱 自汗
醫宗金鑑	治陰虛內熱, 頭痛口渴, 表熱自汗, 不任風寒, 脈洪大, 心煩不安, 四肢困倦, 懶於言語, 無氣以動, 動則氣高而喘.
醫方集解	治煩勞內傷身熱心煩, 頭痛惡寒, 懶言惡食, 脈洪大而虛, 或喘或渴, 或陽虛自汗, 或氣虛不能攝血, 或瘧痢脾虛, 久不能癒, 一切清陽下陷, 中氣不足之證
萬病回春	治形神勞役.或飲食失節.勞役虛損.身熱而煩.脈洪大而虛.頭痛.或惡寒而渴.自汗無力.氣高而喘.
丁茶山小兒科秘方	勞力이 過多커나 或은 飲食의 失節로 微熱·自汗·倦怠 等症을 나타내는 것은 陽氣가 下陷한 所致니 左記方藥을  쓸지니라
醫學心悟	中氣下陷, 宜服此以升舉之。
古今實驗方	治形神勞役 或飲食失節 勞倦虛損 身熱而煩 脈洪大而虛 頭痛 或惡寒而渴 自汗無力 氣高而喘
腹診과 正統方劑學	飲食無味, 好熱物, 口中生白沫, 手足倦怠, 眼勢無力, 言語輕微, 脈散大無力, 臍邊動悸
筆花醫經	中氣下陷. 以此升之
濟陰綱目	治形身勞倦, 或飲食失節, 以致脾胃虛損, 清氣下陷, 發熱頭痛, 四肢倦怠, 心煩肌瘦, 日漸羸弱
古今各方	益氣升陽, 調補脾胃. 用于脾胃氣虛. 症見食少, 神疲, 畏寒, 自汗或見身熱, 口渴喜熱飲, 頭痛惡寒, 少氣懶言, 舌質淡, 苔白, 脈大無力

Table 4. 補中益氣湯의 主治症 區分과 그에 따른 處方

病症	處方	횟수	頻度(%)
身熱, 表熱, 微熱	補中益氣湯 加 白芍藥 黃柏 <sup>3)</sup>	13	15%
無力, 倦怠, 體倦, 無氣, 少氣, 四肢困倦	補中益氣湯	11	13%
自汗, 陽虛自汗	補中益氣湯 加 麻黃根 浮小麥 附子 <sup>3)</sup>	11	13%
脈洪大而虛, 脈散大無力, 脈洪大	補中益氣湯 加 白芍藥 黃柏	9	10%
心煩, 心煩不安	補中益氣湯 入心養血方 <sup>3)</sup>	9	10%
惡寒	陶氏補中益氣湯 <sup>3)</sup>	8	9%
頭痛	順氣和中湯 <sup>3)</sup>	8	9%
口渴	補中益氣湯 合 生脈散 <sup>3)</sup>	8	9%
言微, 懶言	補中益氣湯	6	7%
氣高而喘, 喘	單人蔘湯, 調中益氣湯 <sup>3)</sup>	6	7%
食少, 惡食, 飲食無味	異功散 <sup>3)</sup>	5	6%
不能攝血, 血脫	益胃升陽湯 <sup>3)</sup>	4	5%
總計		88	100

2. 補中益氣湯의 臨床例

본 臨床例는 2003년 6월 4일부터 2008년 3월 17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한의원에서 補中益氣湯을 사용한 臨床例이다. 臨床例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補中益氣湯을 2회 이상 사용한 예만 조사하였으며, 총 56명의 患者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補中益氣湯이 臨床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1) 症狀別 區分

본 논문에서는 임상가에서 가장 빈용하는 책인 『東醫寶鑑』에 나오는 補中益氣湯 本方만을 사용하여 補中益氣湯의 必然之症을 찾고자 했으며, 補

中益氣湯 加味方을 사용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각 환자에 해당하는 『東醫寶鑑』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56명의 임상례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補中益氣湯을 사용할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面白, 目無精光, 少氣, 嗜臥, 懶言이었다. 따라서 상기 증상은 補中益氣湯의 必然之症으로 볼 수 있고 위의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면 補中益氣湯을 써야 할 환자라고 사료된다. Table 5에서는 56명의 환자의 나이와 성별, 공통증상 외에 부가되는 기타증상, 치료일을 기록하였다.

Table 5. 症狀別 區分

共通症狀(必然之症) : 面白, 目無精光, 少氣, 嗜臥, 懶言

連番	나이	性別	其他症狀	治療日	東醫寶鑑
1	79	여	眩暈, 頭痛	07년 3월 23일 07년 4월 16일	虛暈
2	50	여		06년 10월 23일 07년 2월 3일 08년 2월 11일	勞倦傷
3	63	여	眩暈, 惡心	07년 1월 8일 07년 1월 31일 07년 4월 9일	虛暈
4	34	남	腎不全症, 下肢浮腫	06년 10월 21일 07년 2월 15일	少氣
5	69	여	喘息	06년 5월 23일 06년 6월 16일	勞倦傷
6	77	여	眩暈, 膝痛	04년 11월 12일 04년 11월 20일	老人保養
7	71	여	眼瞼下垂	03년 9월 5일 04년 2월 12일	老人保養
8	26	여		03년 6월 4일 05년 4월 7일	少氣
9	55	여	自汗	06년 8월 29일 06년 10월 12일	勞倦傷
10	59	남	眩暈, 足無力	04년 6월 22일 04년 10월 15일 04년 11월 15일 05년 9월 6일 06년 8월 7일	少氣

11	50	여	言微	05년 3월 9일 06년 2월 28일	少氣
12	68	여	手痙攣, 咽乾	04년 1월 14일 04년 2월 2일	老人保養
13	69	여	食後昏困, 無汗	07년 9월 5일 07년 10월 15일	老人保養 食後昏困
14	77	여	眩暈, 食慾不振	06년 5월 10일 06년 5월 30일	老人保養
15	77	여	自汗, 左眼險痙攣	04년 6월 12일 06년 6월 2일	老人保養
16	70	여	怔忡, 不眠, 多怯	07년 9월 29일 08년 2월 27일	老人保養
17	27	여	自汗, 易感冒, 咽乾	04년 2월 6일 04년 2월 19일	少氣
18	60	여	7년된 甲狀腺低下, 食後昏困, 消化不良	04년 1월 20일 04년 2월 21일 04년 5월 24일 04년 6월 21일 06년 8월 30일 08년 1월 8일	少氣
19	44	여	易感冒, 四肢無力, 自汗, 咽乾	04년 6월 19일 06년 6월 23일	勞倦傷
20	77	남	自汗, 盜汗, 食慾不振	04년 3월 20일 04년 11월 29일 05년 2월 21일 05년 9월 2일	老人保養 自汗
21	60	남	手足痙攣, 眼昏 5년전 腦梗塞	08년 1월 21일 08년 2월 12일	老人保養
22	72	여	易感冒, 眩暈, 食慾不振, 咽乾	06년 4월 21일 07년 2월 28일	老人保養
23	31	여	多言	07년 10월 15일 07년 12월 18일	少氣
24	80	여	膝痛	07년 11월 29일 08년 1월 14일	老人保養
25	58	여	自汗 1년전 腦硬塞	04년 6월 22일 04년 7월 19일	勞倦傷
26	47	남	自汗, 食慾不振, 咽乾	04년 7월 28일 08년 2월 1일	勞倦傷
27	67	여	眩暈, 咽乾	04년 7월 24일 04년 8월 18일	老人保養
28	34	남	自汗, 眼難開, 咽乾	04년 8월 25일 05년 5월 28일	勞倦傷
29	66	여	頭轉, 腰痛	07년 3월 6일 07년 10월 8일	老人保養



				08년 2월 20일	
30	51	여	眩暈, 咽乾, 膽除去手術	05년 6월 24일 04년 11월 22일	勞倦傷
31	64	여	自汗, 咳嗽	04년 10월 27일 06년 3월 24일	老人保養
32	43	여	多言, 身重, 消化不良, 自汗, 食慾不振	04년 12월 24일 05년 5월 13일	勞倦傷
33	25	여	面痒,  눈주위 짓무름	06년 10월 11일 06년 11월 15일	少氣
34	61	남	眩暈, 食慾不振, 3년전부터 慢性腎不全症(투석 전 단계)	05년 4월 1일 05년 4월 22일 05년 5월 13일 05년 6월 15일 05년 8월 20일	少氣
35	80	여	食慾不振	07년 4월 17일 08년 3월 19일	老人保養
36	31	남	自汗(10년)	05년 8월 16일 05년 9월 15일	自汗
37	67	여	眩暈, 自汗, 咽乾	05년 7월 28일 06년 1월 14일	虛暈
38	35	남	自汗, 潮熱, 頭汗, 咽乾	05년 7월 23일 06년 5월 27일	勞倦傷
39	17	여	生理量多, 自汗, 盜汗, 眩暈, 手足汗	05년 12월 16일 06년 8월 19일	少氣, 自汗
40	50	남	上半身 盜汗, 四肢無力, 多言, 咽乾	06년 1월 23일 06년 2월 14일 06년 7월 24일	勞倦傷
41	80	여	眩暈	06년 1월 10일 06년 1월 25일	虛暈
42	78	여	眩暈, 頭聲	06년 2월 13일 06년 3월 8일 06년 7월 24일 07년 6월 28일	虛暈
43	78	여	食後昏困, 怔忡, 全身痛	06년 6월 21일 06년 8월 21일	食後昏困
44	39	여	甲狀腺除去手術	06년 7월 6일 06년 8월 3일	少氣
45	32	여	咽乾	07년 1월 19일 07년 8월 11일 07년 11월 12일	少氣
46	68	남	易感冒, 久感冒, 自汗, 咽乾	06년 9월 26일 07년 7월 24일	老人保養
47	25	여	食後昏困, 消化不良, 眩暈, 易感冒	07년 2월 9일 07년 3월 7일	少氣

48	22	여		06년 11월 27일 07년 3월 6일	少氣
49	52	여	自汗, 食慾不振, 眼乾澁, 耳痒, 潮熱	07년 4월 4일 07년 10월 2일	少氣
50	54	여	肩痛, 不眠	07년 3월 9일 07년 10월 1일	少氣
51	49	여	腰膝痛, 胸悶	07년 8월 14일 07년 8월 24일	勞倦傷
52	76	여	腰痛	07년 11월 14일 08년 2월 27일	老人保養
53	61	여	手足痺痛, 消化不良	07년 9월 5일 07년 10월 29일	老人保養
54	31	여	消化不良, 咽乾	07년 10월 4일 08년 3월 19일	少氣
55	59	여	眩暈, 耳鳴	07년 12월 17일 08년 1월 28일	虛暈
56	78	남	再生不良性貧血, 足麻木痙攣	08년 2월 20일 08년 3월 17일	老人保養

\* 주 : 東醫寶鑑은 東醫寶鑑내의 관련 病症部分을 나타낸다.

## 2) 환자의 年齡別, 性別 區分

### (1) 年齡別 區分

Table 6. 年齡別 區分

年 齡	10代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70代	80代	合 計
患者數	1	5	8	4	10	13	12	3	56
비율(%)	1.8%	8.9%	14.3%	7.1%	17.9%	23.2%	21.4%	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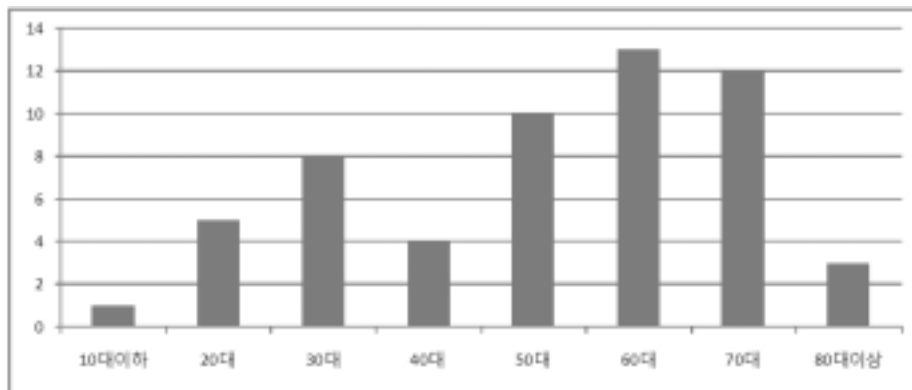


Fig. 1. 年齡別 區分の 도표화

(2) 性別 區分

Table 7-1. 여자

年 齡	10代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70代	80代	合 計
患者數	1	5	4	3	8	10	10	3	44
비율(%)	2.3%	11.4%	9.1%	6.8%	18.2%	22.7%	22.7%	6.8%	100%

Table 7-2. 남자

年 齡	10代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70代	80代	合 計
患者數	0	0	4	1	2	3	2	0	12
비율(%)	0	0	33.3%	8.3%	16.7%	25%	16.7%	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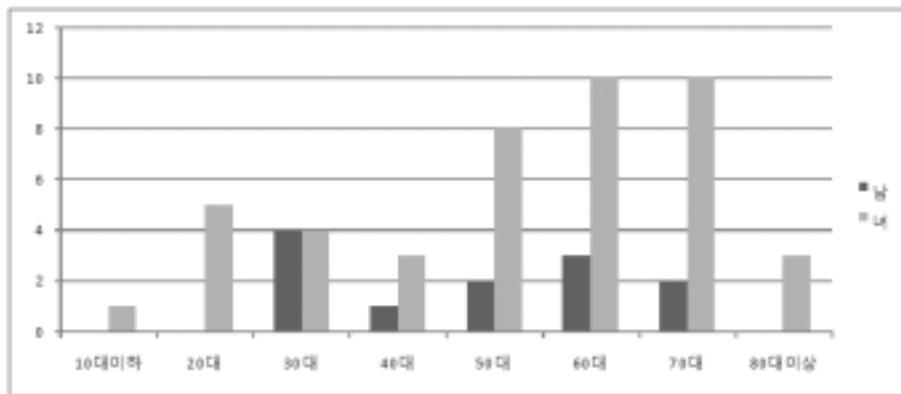


Fig. 2. 性別 區分の 도표화

III. 考 察

1. 文獻考察

補中益氣湯은 金元時代에 A.D. 1232년 李東垣의 『東垣十種醫書』에서 처음 기록된 處方으로, 黃芪 · 人蔘 · 白朮 · 甘草 · 當歸身 · 陳皮 · 升麻 · 柴胡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2에 의하면 補中益氣湯各 약재의 분량은 黃芪 一錢半, 人蔘 白朮 甘草 各一錢, 陳皮 當歸 各五分, 升麻 柴胡 各三分이 가장 많은 頻度로 나왔으며, 조사한 文獻 중 이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東醫寶鑑』과 『方藥合編』이었다.

“李東垣은 脾胃가 虛한 것은 飲食勞倦으로 인

하여 心火가 亢甚하여 土胃를 升하면 그 다음에 肺氣가 邪를 받는다. 모름지기 黃芪를 多用하고 人蔘 甘草는 그 다음이다. 脾胃가 一虛하면 肺氣가 먼저 絶하므로 黃芪를 用하여 皮毛를 유익하게 하고 腠理를 견고하게 하여 自汗하지 못하게 하고 上喘氣短하므로 人蔘으로 이를 補하고 心火가 勝脾하니 炙甘草의 甘溫을 用하여 火熱을 瀉하고 脾元을 補한다. 만약 脾胃가 急痛하고 아울러 大虛하면 腹中の 急痛에는 마땅히 多用하나 中滿한 者는 이를 減한다. 白朮은 苦甘溫하여 胃中の 熱을 除하고 腰臍間의 血을 利하게 하며 胃中에 清氣가 在中하니 반드시 升麻 柴胡를 用하여 이를 升하고 蔘芪 甘草의 甘溫한 氣味를 引하고 상승하여 胃氣

의 虛를 補하여 肌表를 實하게 하고 또 帶脈의 縮急을 弛緩한다. 氣가 中에 亂하여 淸과 濁이 相干하면 去白한 陳皮를 用하여 다스리고 또 陽氣의 上升을 도와 濁氣를 消散한다. 脾胃가 虛하여 陰火가 그 生發之氣를 傷하면 營血이 大虧하고 血減하면 心의 所養이 없어 心滿而煩하게 되나니 病名은 惋이라고 한다. 고로 甘辛微溫한 劑를 加하여 陽氣를 생산하게 한 것이다. 仲景의 法에 血虛하면 人蔘으로 이를 補하니 陽旺하면 能이 陰血이 生한다. 다시 當歸로써 이를 和하게 하고 黃柏을 조금 加하여 腎水를 救療하여 陰火의 伏火를 瀉한다.<sup>31)</sup>라고 하였다.

Table 1의 총 19 가지 文獻考察을 통해서 본 補中益氣湯의 處方內容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醫宗金鑑』은 生薑 大棗를 제외한 나머지 藥材에는 用量이 없었고, 나머지 文獻들은 모두 各各의 用量이 있었다.

Table 2에 의하면 黃芪는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한 것이 三錢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한 양은 一錢이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用量은 18가지 文獻 중에 총 12회에서 사용된 一錢 五分이었다.

人蔘은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한 것이 三錢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한 양은 七分이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用量은 18가지 文獻 중에 총 12회에서 사용된 一錢이었다.

白朮은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한 것이 三錢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한 양은 五分이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用量은 18가지 文獻 중에 총 9회에서 사용된 一錢 五分이었다.

甘草는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한 것이 一錢 五分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한 양은 五分이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用量은 18가지 文獻 중에 총 12회에서 사용된 一錢이었다.

陳皮는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한 것이 一錢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한 양은 五分이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用量은 18가지 文獻 중에 총 11회에서 사용된 五分이었다.

當歸는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한 것이 三錢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한 양은 五分이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用量은 18가지 文獻 중에 총 7회에서 사용된 一錢과 五分이었다.

升麻는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한 것이 一錢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한 양은 二分이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用量은 18가지 文獻 중에 총 11회에서 사용된 三分이었다.

柴胡는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한 것이 二錢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한 양은 二分이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用量은 18가지 文獻 중에 총 11회에서 사용된 三分이었다.

生薑은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한 것이 三片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한 양은 0片이었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用量은 18가지 文獻 중에 총 8회에서 사용된 0片이었다.

大棗는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한 것이 3枚였고 가장 적게 사용한 양은 0枚였으며, 가장 많은 頻度로 사용된 用量은 18가지 文獻 중에 총 9회에서 사용된 0枚였다.

Table 3과 Table 4에 따라 補中益氣湯의 主治症을 증상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身熱, 表熱, 微熱은 13회, 無力, 倦怠, 體倦, 無氣, 少氣, 四肢困倦은 11회, 自汗, 陽虛自汗은 11회, 脈洪大而虛, 脈散大無力, 脈洪大는 9회, 心煩, 心煩不安은 9회, 頭痛은 8회, 惡寒은 8회, 口渴은 8회, 言微, 懶言은 6회, 氣高而喘, 喘은 6회, 食少, 惡食, 飲食無味은 5회, 不能攝血, 血脫은 4회이다.

본 저자는 임상에서 상기의 主治症 중 補中益氣湯의 必然之症을 정확하게 알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Table 4와 같이 主治症別로 처방을 구분해 보았다.

主治症 중에서 身熱, 表熱, 微熱이 총 13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氣虛로 인한 熱로 봐야 하며, 氣虛熱에는 補中益氣湯에 白芍藥 黃柏을 가한 處方이 더 適方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主治症은 無力, 倦怠,

體倦, 無氣, 少氣, 四肢困倦으로 총 11회 사용되었는데, 이 主治症이 바로 補中益氣湯의 適症이라 할 수 있다.

自汗, 陽虛自汗은 총 11회 사용되었는데, 自汗을 主訴症으로 내원하였다면 補中益氣湯에 麻黃根 浮小麥 附子를 가한 處方이 더 適方이다.

맥에 대해서 脈洪大而虛, 脈散大無力, 脈洪大가 총 9회 사용되었다. 그 중에 『醫宗金鑑』에는 脈洪大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實證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脈洪大라는 것은 脈洪大하면서 虛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臨床에서 보면 脈洪大而虛한 경우에는 補中益氣湯에 白芍藥 黃柏을 가한 處方을 사용하는 것이 더 適方이고, 補中益氣湯의 脈은 脈虛, 脈無力으로 나타난다.

心煩, 心煩不安도 9회 사용되었는데, 이 경우는 補中益氣湯 本方보다는 附方이라 할 수 있는 入心養血하는 처방인 黃芪 一錢半, 人蔘 白朮 甘草 當歸 陳皮 各一錢, 升麻 柴胡 各五分, 黃柏 三分, 紅花 二分을 사용하는 것이 더 適方이다.

頭痛도 8회가 사용되었는데, 氣虛에 의한 頭痛이라면 順氣和中湯이 더 適方이다.

惡寒도 8회 사용되었는데, 이는 內傷과 外感이 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陶氏補中益氣湯을 사용하는 것이 더 適方이다.

口渴도 8회 사용되었는데, 口渴이나 咽乾의 症狀이 있을 때는 生脈散을 合方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適方이다.

懶言과 言微는 6회 사용되었는데, 懶言은 말을 하기 귀찮고,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한 것이며, 言微는 목소리가 작은 것이다. 이 중에 懶言은 補中益氣湯의 適症으로 볼 수 있으며, 言微는 少氣<sup>3)</sup>의 대표적인 症狀으로 補中益氣湯의 適症으로 볼 수 있다.

氣高而喘, 喘은 6회 사용되었는데, 喘症이 主訴症이라면 單人蔘湯이나 調中益氣湯이 더 適方이다.

食少, 惡食, 飲食無味와 같은 胃腸疾患도 5회 나오는데, 氣虛하면서 胃腸機能이 低下되어 있다면 『東醫寶鑑』 胃門과 內傷門에 나오는 異功散을 사용하는 것이 더 適方이다. 異功散은 四君子湯에 陳皮만 가미한 처방으로 四君子湯의 개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四君子湯과 補中益氣湯이 모두 氣虛에 사용하는 약이나 그 처방의 구분이 애매하여 脈의 有無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에서 보았듯이 脈은 補中益氣湯의 必然之症으로 보기 어렵다. 『東醫寶鑑』에 보면 '만약 常時로 虛弱한 老人이면 溫補를 주로 하고 粥으로 調養하여 수양할 것이니 補中益氣湯·異功散·衛生湯·固眞飮子를 사용하고<sup>3)</sup>라고 되어 있는데, 기허에 해당하는 약은 補中益氣湯과 異功散을 말하고 있으며, 식욕이 없고 胃腸의 기능이 많이 약하면 異功散을, 그렇지 않고 氣虛症이 위주일 때는 補中益氣湯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東醫寶鑑』 胃門에도 나와 있는데, 異功散은 脾胃虛弱으로 음식 생각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氣虛하면서 食少, 惡食, 飲食無味の 증상이 있을 때에는 異功散이 더 適方이라 하겠다.

不能攝血, 血脫이 4회 나오는데, 氣虛하면서 심한 血虛症이 보인다면 益胃升陽湯이 適方이다.

그리고 『醫宗金鑑』의 主治症에서 陰虛內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陰虛內熱이라면 知柏地黃丸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補中益氣湯을 사용할 경우는 아니라 생각한다.

## 2. 臨床活用性

2003년 6월 4일부터 2008년 3월 17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한의원에서 補中益氣湯을 사용한 臨床例이다(Table 5). 臨床例의 正確性を 기하기 위해 補中益氣湯을 2회 이상 사용한 사람만 조사하였으며, 총 56명의 患者에 대한 결과이다. 56명의 患者에게 총 156회를 사용하였으며, 총 6회를 處方한 환자는 1명, 5회 사용한 患者는 2명, 4회 사용한 患者는 2명, 3회 사용한 患者는 5명이었으

며, 2회 사용한 患者는 46명이었다.

이상의 臨床例를 통해서 補中益氣湯의 適應症을 연구해 본 결과, 補中益氣湯의 여러 가지 主治症 중에 必然之症은 面白, 眼精光無, 少氣, 嗜臥, 懶言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慢性腎不全症이나 再生不良性貧血을 앓고 있는 患者는 面色이 黑色이었다. 비록 面色이 黑色이지만, 補中益氣湯의 必然之症이 명확하기에 證治의 概念으로 補中益氣湯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Table 7-2.에서 남자 총 12명 중의 1/3이 30代로 다른 나이에 비해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일주일씩 번갈아 해 오고 있었다. 『東醫寶鑑』 勞倦傷에 의하면 起居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것도 氣가 損傷을 당하는 원인<sup>3)</sup>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주야간을 바꾸어 근무하던 患者들의 경우 勞倦傷에 의한 氣虛症狀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補中益氣湯의 적응증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疾病을 機能的 疾病과 器質的 疾病으로 구분해 본다면, 補中益氣湯은 器質的 疾病에 사용하기 보다는 機能的 疾病에 더 효과가 좋았다.

예를 들면 子宮下垂, 脫肛 등의 器質的 疾病에도 補中益氣湯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으나<sup>32-34)</sup>, 실제 臨床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病에 사용해도 쉽게 治療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器質的인 문제가 없이 機能的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補中益氣湯을 사용해 보면 약 1劑半 정도의 療程에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만약 患者가 자각할만한 치료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補中益氣湯의 適症이 아닐 것이다. 『東醫寶鑑』에는 醫者가 다스리기 가장 어려운 것이 陰을 補하는 것이라 하였는데<sup>3)</sup>, 이처럼 補陰 補血之劑는 補中益氣湯 같은 補氣之劑보다 효과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리고 補中益氣湯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患者들의 治療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을 臨床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臨床例에서도 알 수 있듯이 慢性 腎不全症, 甲狀腺 疾患, 再生不良性 貧血 등의 慢性的인 難治性 疾患에도 補中益氣湯의 必然之症에 해당하는 目無精光, 少氣, 嗜臥, 懶言 등의 症狀이 있으면 補中益氣湯을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IV. 結 論

補中益氣湯의 文獻的 考察과 臨床例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補中益氣湯의 각 藥材의 분량은 黃芪 一錢半, 人蔘 白朮 甘草 各一錢, 陳皮 當歸 各五分, 升麻 柴胡 各三分이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난다.
2. 補中益氣湯의 必然之症은 面白, 目無精光, 少氣, 嗜臥, 懶言이었다.
3. 補中益氣湯의 必然之症 이외의 主治症을 종류별로 나누어 그에 대한 더 나은 處方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身熱, 表熱, 微熱에 補中益氣湯 加 白芍藥 黃柏이, 自汗, 陽虛自汗에 補中益氣湯 加 麻黃根 浮小麥 附子가, 脈洪大而虛, 脈散大無力, 脈洪大에 補中益氣湯 加 白芍藥 黃柏이, 心煩, 心煩不安에 補中益氣湯 入心養血方이, 頭痛에 順氣和中湯이, 惡寒에 陶氏補中益氣湯이, 口渴에 補中益氣湯 合 生脈散이, 氣高而喘, 喘에 單人蔘湯이나 調中益氣湯이, 食少, 惡食, 飲食無味에 異功散이, 不能攝血, 血脫에 益胃升陽湯이 適方이다.
4. 補中益氣湯은 器質的인 病보다는 機能的인 病에 더 적합하다.

## 參考文獻

1

[www.hani.co.kr/section-005100031/2004/08/005100031200408171601404.html](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1/2004/08/005100031200408171601404.html) [덜 먹어야 잘산

- 다] 유태우 교수의 웰빙 뒤집어보기
2.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大星文化社, 1994:38.
  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南山堂. 1995: 646, 618, 90, 646, 595, 233, 726, 136, 150, 32, 17, 644, 758.
  4. 王平. 中醫十大名方妙用 補中益氣湯.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4:30-36, 43, 48, 51, 55, 59, 66, 70, 71, 72, 74, 98, 99, 101, 109, 111, 113, 118, 121.
  5. 최인선. 보중익기탕 및 그 가미방을 투여한 중풍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부산:동의대 대학원. 2004.
  6. 강혜인.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다당체 분획의 대식세포 분화 유도 및 기능 증진 효과. 순천:순천대 대학원. 2005.
  7. 강대성, 감철우, 박동일. 보중익기탕이 알레르기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부산:동의대 대학원, 2003.
  8. 이승룡. 補中益氣湯 및 補中益氣湯 加味方이 흰쥐의 알레르기 천식에 미치는 영향. 부산:동의대학교, 1999.
  9. 채수연, 신성해, 하미혜, 조성기, 김성호, 변명우, 이성태.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의 T세포 증식 유도 효과. 순천:순천대학교. 2004.
  10. 채수연, 신성해, 하미혜, 조성기, 김성호, 변명우, 이성태.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의 B세포 분화 유도 효과. 순천:순천대학교. 2004.
  11. 은재순, 최훈, 송정모. 補中益氣湯이 생쥐의 특이적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 전주:우석대학교. 2002.
  12. 張介賓. 國譯 景岳全書. 서울:一中社. 1992:4권 147.
  13.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 서울:大星文化社. 1993:상권 149.
  14. 陣夢雷, 蔣廷錫. 醫部全錄. 서울:大星文化社. 1992:6권 93.
  15. 李梴. 國譯 編註 醫學入門. 서울:南山堂. 1991: 3권 487.
  16. 黃度淵. 對譯 證脈·方藥合編. 서울:南山堂. 1992:142.
  17. 吳謙 外. 醫宗金鑑. 서울:大星文化社. 1994:中卷 57.
  18. 蔡仁植, 孟華燮. 國譯醫方集解. 서울:大星文化社. 1992:235.
  19.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癸丑文化社. 1977:122.
  20. 丁茶山. 丁茶山小兒科秘方. 서울:杏林出版社. 1974:55.
  21. 程國彭. 醫學心悟. 서울:경희대 50기 졸업위, 2002:309.
  22. 虞搏. 醫學正傳. 서울:成輔社, 1986: 63.
  23. 상지대학교 한의과 제4기 졸업준비위원회. 國譯血證論. 서울:一中社, 1997:268.
  24.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제2기 졸업준비위원회. 國譯傳青主男女科葉天士女科. 서울:大星文化社, 1995:135.
  25. 安稔中. 古今實驗方. 서울:杏林書院. 1954:102.
  26. 盧永範. 腹診과 正統方劑學. 서울:대성의학사. 2005:83.
  27.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제3기 졸업준비위원회. 國譯 筆花醫鏡. 서울:鼎談. 1996:51.
  28. 武之望. 濟陰綱目. 서울:一中社. 1992:129.
  29. 楊蘊祥. 古今各方. 河南省: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3:122.
  30. 大韓形象醫學會. 芝山形象醫案. 서울:芝山出版社. 2003:751.
  31. 蔡仁植, 孟華燮. 國譯醫方集解. 서울:大星文化社, 1992:236-7.
  32. 廣州醫學院主編. 方劑學. 서울:永林社. 1994: 169.
  33. 東醫科學院. 東醫處方大全. 서울:驪江出版社, 1993:1권 71.
  34. 王平. 中醫十大名方妙用 補中益氣湯.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4:79.